

또한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대중들은 파놉티콘의 죄수와 같은 처지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파놉티콘은 18세기 철학자 벤담이 설계한 감옥으로, 원형 건물 중앙의 감시탑에서 주변을 모두 감시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생체정보, 의료기록, 이동경로, 취미활동 등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 가능하도록 하여 파놉티콘과 같은 기능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은 과학기술과 그 기술을 지닌 사람들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이라는 파놉티콘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유로운 삶은 불가능할 것이다.

### 문제 1

제시문 <나>는 다양한 도덕적 판단 원칙들을 보여준다. 제시문 <가>의 자율주행차 사례에서 전 세계 대다수 사람들이 내린 판단은 적절한가? 제시문 <나>의 각 원칙들을 적용하여 평가해 보고, 이 사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문 <나>의 도덕적 판단 원칙들에 근거하여 논술하시오. (800~1,000자)

### 문제 2

제시문 <다>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에 미친 영향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을 읽을 수 있다. 제시문 <다>에 제시된 두 가지 시각을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자율주행차가 인간의 삶과 인간의 사고방식에 미칠 다양한 영향을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를 효과적이고 바람직하게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800~1,000자)

## 02 출제개요

### 가. 출제의도

이번 인문사회계열 모의 논술 고사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세계사> 등의 다양한 교과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실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문제와 그 해결에 응용하게끔 함으로써, 종합적 사고, 논리적 분석, 비판적 평가, 창의적 응용 능력을 포함한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고급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하나의 문제 사례를 두 가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사례와 제시문을 배치하고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논의의 폭과 깊이를 갖춘 문제 해결 역량을 측정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내용 및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료들 및 고등학생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들로 구성함으로써 고등학생 수준의 인문적 소양과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학생이라면 충분히 제시문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이번 논술 고사는 '자율주행차의 실용화'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두 가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응시자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차의 실용화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 중의 하나로 '트롤리 문제'의 제3자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각 도덕적 원칙들을 적용하여 판단해 보도록 하였다. 두 번째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자율주행차' 사례에 적용해 봄으로써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동일한 사례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만큼 각 문제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게 각각의 논지를 전개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 나. 제시문요약

제시문 <가>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2018년 11월 21일에 발간한 『주간기술동향(Weekly ICT Trends)』의 본문을 발췌, 수정한 것으로서, 고등학교 <사회·문화> 및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연계된다. 제시문은 무인 자율주행차의 실용화를 위해서 위험 상황에서 자율운전차가 행해야 하는 윤리적 선택에 대해 MIT 미디어랩이 과학 잡지 네이처에 게재한 연구 내용을 소개한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멈출 수 없는 자율주행차가 사람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희생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전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수보다 다수를 구해야 한다고 대답했다는 것이 연구의 주요 결과이다.

여기서 판단의 주체를 자율주행차 스스로가 아니라 네트워크에 연결된 메인 컴퓨터로 상정한 것은 이 사례가 트롤리 문제의 '제3자 사례'에 해당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트롤리 문제를 판단해야 할 주체가 당사자 본인일 경우와 제3자일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및 <윤리와 사상> 교과서와 <트롤리문제와 도덕판단의 세 가지 근거들> (강철, 윤리연구)에서 발췌, 수정한 것이다. 제시문에서는 윤리적 딜레마의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도덕적 판단원칙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객관적 사실 원칙'으로 어떤 행위의 결과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의해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원칙이다. 이는 어떤 행위가 옳은가를 결정하려면 행위가 산출하는 가장 좋은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아내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공리주의의 원칙이다. 두 번째 도덕적 판단 원칙은 '함과 둠 원칙'이다. 이는 '해를 가하는 행위(doing harm)'와 '해를 놔두는 행위(allowing harm)'를 구분하고 그 사이에서 도덕적 차이를 두고자 하는 원칙으로 '죽임(killing)'의 행위가 '죽게 둠(letting die)'의 행위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쁨을 분명히 제시한다. 세 번째 도덕적 판단 원칙은 '수단화 금지 원칙'이다. 이는 칸트의 도덕적 정언 명령 제2 정식인 "너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인격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고 수단으로 대하지 마라"에서 나오는 것으로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이 인격을 수단화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여기서 '수단으로 삼음'의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대상의 희생을 직접적으로 의도하여 목적을 이루는 것은 수단으로 삼은 것이지만,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희생된 것이라면 설령 그런 상황을 예견했다고 하더라도 수단으로 삼은 것이 아님을 설명함으로써 이 원칙을 적용하였을 때 허용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교과서 <생활과 윤리>와 EBS 수능특강 교재 『생활과 윤리』 및 청소년 철학도서인 『철학, 과학기술에 다시 말을 걸다』(이상헌, 주니어 김영사)와 교양도서 『과학공부』(김상욱, 동아사이), MBC 뉴스 보도(2019년 4월 18일 <230년> 매뉴얼 유물 살리고...첨단 로봇 불길 잡아)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편집·수정한 것이다.

제시문 <다>에서는 근대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삶에 미친 영향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을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예시를 통해 제시하였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는 질병과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영위하게 되었다. 또한 민주주의, 평등 같은 제도와 사상도 과학적 사고의 산물로, 과학기술의 발달과 관련되어 있다. 최근에는 로봇기술이나 AI 등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위험하거나 단순한 일을 하는 대신 좀 더 생산적인 일에 집중한다거나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노트르담 성당 화재 진압 시 사용된 소방 로봇이나 드론을 띄워 얻은 데이터의 활용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과학기술의 발전이 일자리 혁명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예시들은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과학기술 낙관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학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강조하며 부정적 측면을 언급하는 시각도 있다. 인류가 과학기술로 풍요로움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모든 인류가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니며, 지나치게 효율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면서 인간 삶의 다양한 모습과 가치를 왜곡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하였다. 로봇이나 AI처럼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기계의 등장은 19세기 일어난 러다이트 운동처럼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라는 두려움을 불러오고 있다. 게다가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과학기술과 기술을 지닌 사람들에게 종속되어 마치 파놉티콘의 죄수처럼 감시 받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예시들은 과학기술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과학기술 비판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 다. 문항해설

### 문제 1

본 문제는 제시문 <나>에 주어진 세 개의 서로 다른 도덕적 판단 원칙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각각의 원칙을 제시문 <가>의 사례에 적용하여 도덕적 옳고 그름을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제시문 <가>에서 주어진 사례가 제시문 <나>의 원칙들과 어떻게 만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자율주행차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제시문 <나>의 세 가지 원칙과 그 원칙에 따른 평가의 결과 및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이 문제를 통해 지원자의 이해력, 논리적 사고력 및 창의적 사고력을 평가하고, 더불어, 답안 구성의 체계성과 내용의 완결성 및 문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시문 <나>의 첫 번째 원칙인 '객관적 사실 원칙'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고 요약

해야 한다. 결과론적 관점에서 인간의 생명이나 죽음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이라면 그것들을 적어도 만족스럽게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행위는 옳다고 보는 일종의 공리주의적 관점임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원칙에 근거해 볼 때, 제시문 <가>의 사례는 소수를 희생하여 다수를 구하는, 즉 더 많은 인간 생명을 구하는 결과를 선택한 것이므로 도덕적으로 옳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제시문 <나>의 두 번째 원칙인 '함과 둠의 원칙'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메인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명령을 내려 자율주행차의 방향을 돌리지 않는다면 이 행위는 다섯 명을 죽게 놔두는 것이고 반대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이는 다섯 명을 죽이는 것이다. 즉, 둠(letting)과 함(doing) 간의 선택 문제에서 메인 컴퓨터가 자율주행차를 옆길로 방향을 돌리는 것은 둠을 함으로 바꾸는 행위인데, 이 경우 '죽게 함'의 행위가 '죽게 둠'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쁘다고 간주하는 것이 이 원칙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 원칙에 근거한다면 제시문 <가>의 도덕적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이 원칙을 제시문 <가>에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가>에서 행위의 주체가 자율주행차 스스로가 아니라 제3자인 메인 컴퓨터임을 파악해야 한다. 행위의 주체가 제3자이기 때문에 <가>의 사례는 '죽게 함'과 '죽게 둠'사이의 선택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행위의 주체가 자율주행차 스스로라면 이때는 '죽게 함'과 '죽게 둠'의 선택 문제가 되어 함과 둠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운전의 주체는 어떤 방향을 선택하든 스스로 '행한' 것이지만 제3자는 가만히 내버려 둠과 방향을 전환시키는 '함'사이의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자율주행차의 주체는 단순히 그 자동차에 내장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메인 컴퓨터까지 포함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함'과 '함'의 선택에서 더 적은 희생을 초래하는 <가>의 도덕적 판단은 적절하다고 평가해야 하며, 왜 메인 컴퓨터까지 주체에 포함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설득력 있게 서술하여야 한다.

셋째, 제시문 <나>의 세 번째 원칙인 '수단화 금지 원칙'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사례에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이 인격을 수단화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수단화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A의 희생을 의도적으로 수단으로 삼아 좋은 목적을 이루는 것과 좋은 목적을 이루려다 의도하지 않게 부수적으로 A를 희생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윤리적으로 다름을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용인될 수 있음을 파악해 내야 한다. 수단화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했다면 제시문 <가>의 사례는 옆길의 한 명이 자율주행차 앞의 다섯 명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 수단으로 의도적으로 희생된 것이 아니라 다섯 명을 구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희생된 것이므로 이것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판단임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단화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면, 제시문 <가>의 사례는 단순히 다수를 구하기 위해 소수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사례로 인식되어 이러한 도덕적 판단이 옳지 않다고 논하는 데 그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 사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먼저, 대다수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 <나>의 첫 번째와 세 번째 원칙을 자신의 판단 근거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인 '객관적 사실 원칙'은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 번째인 '수단화 금지 원칙'과 충돌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제시문 <가>의 사례는 좋은 목적을 이루려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희생을 불러온 것으로 수단화 금지 원칙의 관점에서 허용될 수 있는 상황임을 주장할 수 있다. 나아가 도덕적 판단 원칙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라면 우선시해야 하는 원칙은 무엇이고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방향을 바꾸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인 '함과 둠의 원칙'을 자신의 판단 근거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신 첫 번째와 세 번째 원칙을 따랐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왜 두 번째 원칙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세 원칙 중 가장 중요한 원칙에 대한 객관적 답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해당 원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중요하게 보는 윤리적 측면을 타당한 논거를 바탕으로 서술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 문제 2

본 문제는 제시문 <다>에 제시된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에 미친 영향을 바라보는 시각을 서술한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글 속에 담겨 있는 두 가지 시각을 찾아 낼 것을 요구한다. 다양한 예시들을 통해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을 추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시각을 <가>에서 제시한 자율주행차의 문제에 적용시켜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두 시각을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과학기술에 적용하여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미칠 영향을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율주행차를 효과적이고 바람직하게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지원자의 견해를 개선하도록 요구한다. 이 문제를 통해 지원자의 이해력, 논리적 사고력 및 창의적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답안 구성의 체계성과 내용의 완결성 및 문장력, 표현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시문 <다>에서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에 미친 영향을 바라보는 두 관점을 찾아내야 한다. 과학기술의 성과와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인류사회의 진보와 풍요를 가지고 왔다고 보고 있다. 즉 과학기술의 성과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과학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과학기술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과학기술의 혜택이 모든 인류에게 돌아간 것도 아니며, 지나치게 효율성과 합리성을 강조면서 삶의 복잡한 모습들을 성급하게 일반화하고 가치를 폄하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또, 과학기술은 전쟁에 활용되어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더 나아가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은 감옥처럼 인간을 감시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과학기술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둘째, 과학기술에 대한 두 가지 견해 - 낙관과 비판 - 를 <가>에 제시된 자율주행차에 적용하여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운행하게 된다. 자율주행차의 이러한 특징은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에 말미암은 것인데, 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삶의 변화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에 제시된 내용을 적극 활용하여 서술한다.

긍정적인 측면의 예를 들자면,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같은 위험한 상황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노트르담 성당 화재를 진압하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고온에서도 로봇은 불을 끌 수 있었던 것처럼 운전하기 위험한 곳에 차량이 가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자율주행차는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동차가 소유의 대상에서 공유의 대상으로 바뀌는 것도 생각할 볼 수 있다. 또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동안에 책을 읽거나 화상회의를 할 수도 있고, 가족들과 대화를 더 깊게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도 있어서, 운전에서 시간을 이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수도 있고, 또는 자율주행차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할 수도 있어 일자리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의 예를 들자면, 도로에서 일어나는 돌발적인 상황에서 기계가 사람처럼 순간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자율주행차가 일으킨 사고는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는, 19세기 방직기계의 등장으로 숙련공들이 일자리를 잃었던 것처럼, 결국 운전자가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들면서 택시운전사나 버스운전사 등이 일자리를 뺏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한 프라이버시와도 관련이 있어서 제시문 <가>에 의하면 자율주행차 운영을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를 누가 소유하고 어느 수준까지 익명화하고 공유할 것인지, 서비스업체와 국가기관의 데이터 접근은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지, 해킹을 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즉 대중들은 제시문 <다>에서 언급한 파놉티콘의 죄수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긍정·부정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의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활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나친 낙관론은 과학기술 지상주의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과학기술의 가치와 성과까지 부정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잘 파악하고, 이러한 양면성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반성적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자율주행차의 개발과 활동도 인간을 위한 것이므로 인간이 지니는 심리적, 육체적 취약성에 대한 섬세한 진단을 통해 자율주행차가 초래할 위험들을 잘 간파하여 가능한 대책을 서술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율주행차의 활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도록 한다.

# 03 평가기준

문항	배점	세 부 내 용
문제1	50	* 제시문 <나>의 객관적 사실 원칙에 드러난 관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제시문 <가>의 사례에 적절히 적용하여 평가하였는가?
		* 제시문 <나>의 함과 둠 원칙에 드러난 관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제시문 <가>의 사례에 적절히 적용하여 평가하였는가?
		* 제시문 <나>의 수단화 금지 원칙에 드러난 관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제시문 <가>의 사례에 적절히 적용하여 평가하였는가?
		* 제시문 <가>의 사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나>의 세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개선하였는가?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했는가?
문제2	50	* 제시문 <다>에서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한 낙관적(긍정적)인 시각과 비판적(비판적) 시각을 적절히 나누고, 명료하게 정리하였는가?
		* 제시문 <가>에서 자율주행차의 운행 원리를 이해하고, 위에서 정리한 두 시각을 자율주행차에 적용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했는가?
		* 자율주행차의 활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과학기술의 긍정·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제도적·윤리적 측면과 연결하여 창의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게 개선하였는가?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했는가?

## 문제 1

1번 문제의 답안은 다음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 첫째, 제시문 <나>에 드러난 객관적 사실 원칙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제시문 <가>의 사례에 적용하여 자율주행차의 방향 전환은 적절하다고 평가하기
- 둘째, 제시문 <나>에 드러난 함과 둠 원칙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제시문 <가>의 사례에 적용하여 자율주행차의 방향 전환은 적절하지 않다(또는 적절하다)고 평가하기
- 셋째, 제시문 <나>에 드러난 수단화 금지 원칙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제시문 <가>의 사례에 적용하여 자율주행차의 방향 전환은 허용될 수 있다고 평가하기
- 넷째, 제시문 <나>에 드러난 세 원칙 및 그 원칙들의 적용 결과를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자율주행차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기

### 첫째 부분

- 제시문 <나>에 드러난 객관적 사실 원칙을 파악하고 이를 명확하게 요약하였는지 점검한다.
- 객관적 사실 원칙을 제시문 <가>의 자율주행차 사례에 적용할 때, 소수의 생명보다는 다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적절한 판단임을 논리적으로 서술했는지 점검한다.
- 해당 원칙을 적용하여 사례를 평가하는 과정의 논리성을 점검한다.

### 둘째 부분

- 제시문 <나>에 드러난 함과 둠 원칙을 파악하고 이를 명확하게 요약하였는지 점검한다.
- 함과 둠 원칙을 제시문 <가>의 자율주행차 사례에 적용할 때, 다수를 '죽게 둠'보다 소수를 '죽임'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더 나쁜 것임을 파악하여 메인 컴퓨터의 명령은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판단임을 논리적으로 서술했는지 점검한다. (메인 컴퓨터의 명령까지도 판단의 주체로 간주할 경우에는 적절한 판단으로 서술할 수 있음)
- 해당 원칙을 적용하여 사례를 평가하는 과정의 논리성을 점검한다.

### 셋째 부분

- 제시문 <나>에 드러난 수단화 금지 원칙을 파악하고 이를 명확하게 요약하였는지 점검한다.
- 수단화 금지 원칙을 제시문 <가>의 자율주행차 사례에 적용할 때, 방향전환으로 희생되는 1인은 5명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의도된 수단이 아니라 5명을 구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희생된 결과이므로 비록 이러한 희생이 예견된 것이라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행위, 즉 수단화 금지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임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였는지 점검한다.
- 해당 원칙을 적용하여 사례를 평가하는 과정의 논리성을 점검한다.

### 넷째 부분

- 제시문 <나>에 드러난 세 원칙의 관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차이점을 비교하였는지 점검한다.
- 자신의 견해를 지지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장점을, 반대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견해 서술이 타당한 근거와 설득력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한다.
-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는 과정의 전체적 논리성을 점검한다.

## 문제 2

2번 문제의 답안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시문 <다>에 드러난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게 정리하기

둘째, 제시문 <가>에서 자율주행차 운행 원리를 파악하고, 자율주행차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들을 제시문 <다>에 근거하여 평가하기

셋째, 과학기술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자율주행차의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사용이라는 실례를 통해 창의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 첫째 부분

- 제시문 <다>에 드러난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류의 삶에 미친 영향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파악하고 이를 분명하게 제시하였는지 점검한다.
-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의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서술하였는지 점검한다.
- 응시자가 해당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해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둘째 부분

- 제시문 <가>의 앞부분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운행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긍정적 측면을 제시문 <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과학기술 발전의 긍정적 요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했는지 점검한다.
-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부정적 측면을 제시문 <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과학기술 발전의 긍정적 요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했는지 점검한다.
- 제시된 내용에 대한 응시자의 명확한 이해 및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논리성을 평가한다.

### 셋째 부분

- 자율주행차의 바람직한 운영에 대해 제시문과 앞에서 서술한 본인의 논지에 바탕하여 응시자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개진했는지 점검한다.
- 단순히 긍정적, 부정적 입장에서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윤리적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
- 과학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자율주행차라는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창의성, 논리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한다.